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印刷人 方又榮
主幹 宋赫
編輯部長 李政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社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⑰8131—2
本社直通 ⑰8577
每週火曜日發行

開校 72周年 紀念 東國祝典 8日 開幕

學徒護國團서 日程 確定

東國人의 知性과 낭만을 꽃피울 開校 72周年紀念「東國祝典」이 5月8日 오전10時 체육관에서 거행되는 開校紀念式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幕을 올린다. 尹月下 理事長, 李瑄根總長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교직원및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개교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및 근무교직원 22명에 대한 표창수여식도 있게된다. 이어 학도호국단 주최로 약 1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1日까지 4日間에 걸쳐 「學術祭」「藝術祭」「民俗祭」「힘의祭典」등으로 나누어 열리게되는 「東國祝典」은 오후 2時 中講堂에서 열리는 「前夜祭」의 祝典宣言으로 푸른 5월의 하늘을 수놓을 젊음의 대제전이다.

9일에는 「서울 촌극경연대회」가 오전 10시부터, 「고전 민속놀이」가 白民思想硏究館 주최로 본관앞에서 11시부터, 「종교제」가 오후2시부터 중강당에서 열리는등 「경로잔치」, 「욱야잔치」, 「새한국의노래」, 「Speech 대강좌」가 열린다. 특히 이날 오후5시부터는 華僑고등학교 학생들이 출연하는 「중국민속무용」이 중강당에서 열릴예정이다.

이어 10日에는 「마라톤 대회」의 출발이 오전 11시 30분 대운동장에서 있으며 「농악」이 農藝村硏究部에의해 공연된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방송제」가 중강당에서있으며, 「동국문학연」이 학생회관 공개홀에서 4시에 시작된다. 東國祝典의 마지막날인 11일에는 오전9시부터 「동국사격대회」가 학군단 사격장에서, 「테니스大會」가 테니스코트에서, 「탁구대회」가 체육관에서 일제히 시작되며, 오후2시부터는 「노래하는 곳에」(TBC 라디오) 공개방송이 중강당에서 있고 이어 「팝 페스티발」이 본교생으로 구성된 보컬그룹들이 출연, 중강당에서 열리는 「테니스大會」 및 행운권 추첨도 오후 5시30분부터 중강당에서 열린다.

그리고 오후7시에는 이번 축제의마감을 장식하는 「팝페스티발」이 24밤의 폭죽과 함께 대운동장에서 거행되어, 4일간에 걸친 「東國祝典」의 막을 내리게 된다.

◇黃正一君

黃正一君 外試 合格

本校 黃正一(大學院 군)이 總務處시행 제12回 外務考試 2차시험에 合格했다. 지난 4月20日 實施되였던 외무고시 2차시험에 합격된 黃君은 오는 19日의 面接을 남겨놓고 있다.

學生處·學軍團 27日, 親善體育大會

學生處·學軍團 親善體育大會가 지난달 27日 체육관에서 열려 學軍團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東友會 산상세미나 李丙疇博士 演士로

東友會(회장=배연명) 山上세미나가 李丙疇교수및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日) 도봉산에서 있었다.

산상수련을 통한 자아완성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세미나에서 李교수는 『자연에 나도전하는 젊은이여, 그 자체가 바로 인간자신의 농력에도 전하는 것이며, 頂上정복의 피눈물나는 과정이야말로인간에 있어서 가장 값진것이라고 강조했다.

實習器材購入 各種器材 5백여점

科學館(관장=河德模博士)에서는 지난 24일 78학년도 제1학기분 實驗實習用器材 5백50여점을 구입하였다. 實驗實習재의 보완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주게될 이번 기재들은 工大, 農大, 文理大의 각과에 배정될 예정이다.

한편 購入品目은 細目別로 살펴보면 전자·전기기재 2백48點, 硝子 73點, 試藥 1백73品등이다.

蹴球, 準決勝서 憤敗 大學聯盟戰서 3位記錄

春季 大學축구연맹전 決勝토너멘트에 進出한 본교 축구부는 高麗大와 서울大를 격파하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慶熙大에 3대1로 아깝게 憤敗, 3위에 머무렀다.

예선리그에서 忠北大와 公州師大를 大破하고 결승토너멘트에 진출한 축구부는 23일, 결승토너멘트 첫게임에서 우승후보로 지목되던 高麗大와 大接戰 끝에 0대0으로 비겼으나 승부키 승늘 거두고 8강권에 진입, 新銳 서울대戰에서도 熱戰끝에 승부각에서 5대4로 이기고 準決勝에 진출했다.

29日 결승진출의 티켓을 놓고 慶熙大에 격돌, FW崔英培등이 분전했으나 3대1로 아깝게 憤敗, 3位에 머무렀다.

4·19義擧 18周年 東友塔서 紀念式學行

4·19義擧 18주년 기념식이 지난달 19일 오전10시 鄭允武학생처장을 비롯한 교수및 학도호국단 간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東友塔에서 있었다. 故盧泰愚(당시法·3)군을 추모하고 4·19의거의 참뜻을 새긴 이날 紀念式은 獻花, 焚香, 般若心經 讀誦 묵념순으로 진행되었다.

軍宗將校選拔試驗 26日, 佛大生對象

예비역 군종장교 선발시험이 오는 27일과 6월1일 양일간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교단 대표자의사 참파송보증이 있는자와 불교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1984년(3학년 응시자는 1982년)까지 대덕법계승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이다.

원서접수및 교부는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이며 접수처는 국방부군종담당관실이다. 한편 시험은 5월29일 필기와 실기가, 6월1일 신체검사로나뉘어져 실시된다.

敎育學科體育大會 2학년팀優勝

제2회 敎育學科 체육대회가 지난 22일(土) 대운동장에서 열려 2학년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敎職員 테니스大會 盛況 김용락·박주순組등 優勝

春季 「교직원친선테니스大會」가 지난 23일(日)교직원테니스회(회장=李瑄根총장)주최로 50여회원이참가한 가운데 교직원테니스코트에서 열렸다.

교직원상호간의 체력향상과친목도모를위해 열린이번 테니스대회는 A·B양조로나뉘어 풀리그를벌인 끝에 김용락·박주순(기획실)—박주순(工大)—심효웅組(A組), 윤주역(工大)—심효웅組(총무처)組(B組)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각조의 명단은 다음과같다.

◇A조
▲우승=김용락(기획실), 박주순(원산원) 조
▲준우승=유충운(학적과), 이병천(농장) 조
▲3위=신일식(총무과), 백우현(원산원) 조

◇B조
▲우승=윤주역(工大) 심효웅(총무처) 조
▲준우승=원병휘(대학원), 황영수(2부교학과) 조

◇「東國祝典」行事 日程

일	시	행사명	주관	장소	예산
8日	10:00	기념식			
	11:00	수계대법회			
	12:30	불교사상강연회	불교대	정각원	67,000
	14:00	불교(정야제) 동국국민의 전통춤 가곡의 향연 신인 밤	문예부	중강당	230,000 300,000
9日	10:00	서울촌극경연대회	새마을부	중강당	277,000
	11:00	민속놀이	MRA사상연구		
	12:00	새한국의노래	백합회	중강당	120,000
	13:00	Speech 대강좌	스피치연구회		
	14:00	종교제	교목부	중강당	372,000
		경로잔치		중강대앞	235,000
	16:30	민속무용	동악이우회	분수대	50,000
		욱야잔치	여학생대대	중강당	402,000
10日	11:00	마라톤대회	체육부	운동장	192,000
		농악	농악연회		30,000
		바둑대회	기우회	바둑실	93,000
	12:00	반공강연회	호연회	세미나실	97,000
	14:00	어버이의 날	여학생부	대강당	426,500
		전국의 어제오늘	SSA		150,950
	16:00	참말송국제	UN송국문학회	중강당	100,000
		말동산	동악연구회	중강개홀	103,00
	17:00	문학연	민속연구회		302,000
11日	9:00	탁구대회	한일회	체육관	87,600
	14:00	사격대회	훈련부	사격장	89,000
		노래하는 곳에			830,000
		팝페스티발	총무부	중강당	656,000
		쌍쌍카니발			862,000
연일행사 (9日~11日)		시화전	국문과	사색의길	160,000
		동그라미 사진전	동그라미회	전시실	193,500
		서림회 이·서예전	서림회생부	복도	290,000
		꽃꽂이	여학생회	복도	225,000
		미술과 소품	미술과	전시실	250,000
		연극	연극영숙과	연극실	260,000
		건축중수시설	건축과	전시실	
		탑			
기타					2,413,030
총계					10,213,580

※예산은 자체비, 단비, 교비지원 포함

學藝·民俗·宗敎祭등 多彩 11日까지 4日間 總豫算 1千餘萬원

「새로운 精神文化 創造와 佛敎」 佛敎學術세미나 開催 12日, 第1세미나室서

佛敎大學(學長=洪庭植박사)에서는 佛紀 2천5백22년「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새로운 정신文化의 창조와 佛敎」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는 12일오후2시 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학술세미나를개최한다.

佛敎의 새로운 현실참여 문제와 정소년 선도문제에 있어서의 佛敎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될 이번 세미나의 소주제및 발표자 토론참가자는 다음과같다.

◇주제발표자
▲李賓永(佛大·印哲科) 교수=「새로운 정신문화창조와 佛敎」
▲金鎔貞(佛大·哲學科) 교수=「佛敎의 자연, 생명애호정신」

◇토론참가자
▲鄭泰爀(東大) 교수 ▲金雲學(〃) 교수 ▲睦楨培(〃) 교수 ▲金仁德(〃) 교수 ▲朴昌智(〃) 교수 ▲李奎浩(연대) 교수 ▲金炯孝(서강대) 교수。

「불기 2522년」 奉祝行事 正覺院 受戒·紀念 大法會 開催

이 땅의 衆生에게 자비와지혜의 큰빛을 내린 佛紀 2522년「부처님 오신날」을맞이하여 본교에서는 13·14양일간에걸쳐 正覺院(원장=李智冠박사) 주관으로 受戒大法會및紀念大法會 불교대학) 주관의 기념학술세미나등 다양한 봉축행사를마련, 佛誕의 거룩한뜻을 기리게된다.

尹月下이사장을 戒師로하여 오는 13일 오후 2시 정각원 법당에서 갖게되는 受戒大法會는교수 학생및 일반신도를 受戒대상으로하는데 이에 對備, 수계회랑자를 위한 기초교리강좌를 10일부터 3일간에걸쳐 갖는다.

10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 정각원 법당에서갖는 기초교리강좌는 洪庭植佛大學長, 李智冠정각원장, 權奇隆불교대교수등 법사로 하여 기본교리및 신앙생활, 계율생활에 관한 설법이 있을 예정이다.

수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9일까지 호국단 종교부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부처님 오신 날인 14일(陰4월8일)에는 오전10시부터 正覺院法堂에서 紀念大法會를 개최한다.

尹月下스님을法師로 하여 열리는 이번 紀念法會에는 李총장의 봉축사, 佛敎合唱團의 법패등이 있게된다.

또한 오후 5시부터 여러 신도의 모임인 正覺會에서는 지난달28일부터 東國祝典과 제등행렬에 대비하여 연등을 제작하고 있다.

情報科學學術發表 22日, 세미나室서

한국 정보과학회(會長=宋吉永 博士) 춘계 學術硏究 發表會가 지난22일(土) 오전 11시부터 本校 河京洙교수등 학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4층 세미나실에서있었다.

컴퓨터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構成을 통하여 컴퓨터 처리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李喜淵(光雲工大) 교수의 「GPSS를 이용한 Real-time 컴퓨터 시스템의 設計및 分析에 관한 硏究」이외의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統一論壇 開催 4日, 「三者會談」主題로

安保硏究所

「三者會談과 美·北傾圖係」를 主題로 하는 제15회統一論壇이 오는 4일(木)安保硏究所(所長=閔內天博士)에서 열린다. 論壇의 발표자로 주제 오후 3시부터 국토통일원 天池館에서 열린다. 최근 韓半島의 현안문제로 동장한 三者會談에 對한 우리의 자세와 外交的 노력을 다루게될 이번 통일논단은 閔內天박사의 주제발표와 姜慶允교수의 司會로 主題에 관한 討論이진행될 예정이다.

學生指導硏究所

學生活硏究所로 改稱

「學生指導硏究所」가 「學生活硏究所」(所長=鄭允武博士)로 명칭이바뀌었다.

이번 學生活硏究所로 改稱된 것은 學生指導硏究所의 기능이 學生生活相談과 연구에 있기 때문에 취해진것이다.

學生活硏究所의 업무는 學生指導硏究所의 업무와 동일하다.

大青島 砂灘國校生 4~8日 招請, 서울見學

사범대에서는 자매교인 大青島 砂灘국민학교 어린이 20명을 「어린이날」과 本校 개교기념일에 초청, 숙원의 서울을 견학이 있게된다.

이번 砂灘국민학생 초청은 호국단 KUSA-D에서 해마다 벌여온 벽지어린이 서울견학 사업의 일환인데, 지난해10월 南部泳사대학장이 大青島를 방문, 同校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습기재를 지원한 이래 꾸준히 추진되어온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西海 최북단 5개 도서의 하나인 大青島는 어업한계선에 묶여 생계곤란을 겪는 취약지구로서, 砂灘國民學校는 4명의 교사와 29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소규모 학교이다.

이번 사탄國校生들은 林培仁교장의 인솔로 20명(1학년 제외)이 견학하게 되는데, 이들은 KUSA-D(會長=이상철·化工3)주관으로 8일까지 국립묘지, 국회의사당, 고궁, 어린이대공원, 방송국등의 견학으로 4일간 즐거운 일정을 가지게 된다.

保健所長代理에 黃潤性氏 任命

지난 4월17일 李瑄根총장은 그동안 空席 중이던 본교 보건소장에 黃潤性씨를 소장대리로 임명하고 그 발령장을 수여했다.

김호철前보건소장이 사임한 이래 보건소 촉탁으로 근무해온 신임 보건소장대리 黃潤性씨가 일명된것이다。

法政論叢 3輯發刊 敎授·學生論文揭載

法政大學學術論文誌인 「法政論叢」 제3집이 법정대학 법정연구소에서 發刊되어 法政大 각과 소대장을 통해 配付중이다.

이번 論文集에는 徐炫甲(法科) 敎授의 「英國社會法上의 利益配當」, 朴昌響(行政)敎授의 「Problems Water Resources Administration In the U.S」등 무게있는 敎授, 學生論文 11편이 실려 있다.

「師苑」8輯 特別號 20日까지 原稿募集

師範大대대(대대장=유경호·國敎4)에서는 「師苑」 제8輯에 게재할 원고를모집하고 있다.

社告

第16回 全國 男女高校生 文學콩쿠르

高校文學의 향연

本社에서는 開校 第72周年을 맞이하여 全國의 男女高等學校 文學徒들에게 創作意慾을 鼓吹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民族文學의 發展 成取 來日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要領으로 第16回 全國男女高校生 文學콩쿠르를 開催합니다. 每年 많은 文學徒를 길해 온 이 뜻있는 잔치에 많이 參加하여 榮光을 누리기 바랍니다.

◎作品募集種目
(가)詩……3篇이내
(나)時調……3篇이내
(다)小說……70枚이내
(라)隨筆……15枚이내

◎審査節次
高等學校에 在學中인 學生의 作品으로서 學校長이 推薦한 作品(推薦書同封하시기 바람)

◎施賞種目
1차 原稿審査에서 입선한 者는 個別通知하며 5월27일 本校에서 열리는 「白日場」에서 最終 入賞者를 결정한다.
▲詩部……①當選1편 (상장 및 부상) ②佳作2편 (상장 및 부상)
▲時調部……①當選1편 (상장 및 부상) ②佳作2편 (상장 및 부상)
▲小說部……①當選1편 (상장 및 부상) ②佳作2편 (상장 및 부상)
▲隨筆部……①當選1편 (상장 및 부상) ②佳作2편 (상장 및 부상)
※(1차 原稿審査에 합격한者에겐 入賞狀과 副賞을 授與한다)

◎作品提出期間 1978년5월1일부터5월13일까지
直通 ⑰8577
1978년5월 일
東大新聞社

敎授動靜

▲李昌培(교양학부)박사=지난 18日 전북대에서 열린 초등학술강연회에서 「서구문화의 東洋的 省察」이란 연제로 20세기 文學의 특색을 중심으로 강연.

▲趙演鉉(文理大) 敎授=3일부터 6일까지 자유중국 基北에서 열리는 아시아議員聯盟 主催 「아시아 文學者대회」에 主題발표차 지난달 29일 출국 오는 10일귀국예정.

수리보리

受戒와 持戒

오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서 본교 정각원에서는 受戒法會를 개최한다고 한다. 受戒란 持戒를 十分 다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持戒의 어려움 때문에 受戒를 꺼리기 마련이다. 受戒者가 受戒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르고 잡아 보는 것은 사람이 더 심하게 미워하는 것처럼 모르고 하는 악행은 더욱 화를 입는다고 하였다.

受戒만 곧 持戒의 새다고 하였다.

앉아서 받고 일어서서 받아야 破하더라도 戒는 한다고한다. 그런므로 持戒의 어려움 때문에 受戒를 거부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쁜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자는 것과도같다.

이왕 受戒를 하고 持戒生活을 한다면, 아니 持戒生活이 아니라,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사이에서 우리들이 삶고 있을 때, 사소한일은 대수롭지 않게 그 잘못을 범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열반경〉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마음을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셨다.

치 바다의 구멍대와 같아서 조금이라도 결함이 생기면 쓸모없는 구멍대가 된다』고 하셨다.

앉아서 破戒하더라도 受戒는 값진 것이며, 持戒는 바다의 구멍대처럼 조그만한 구멍대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엄하게 하여야 한다.

〈권기종〉

今週一言
當制五陰。
伏意如水,
淸淨和悅。
爲甘露味,
이몸을 五陰의거짓 모임으로서 있다 없어지는 것, 생각해 알면, 마음은 깨끗한 즐거움에 잠기어 甘露의 시원한 맛, 맛볼것이다.
<法句經>

"藥과 휴머니즘"
휴머니즘은 인간주의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철학입니다.
휴머니즘의 具現은
인류 생존의 安寧입니다.
藥과 휴머니즘 ——
이것은 건강을 지키는
동아제약의 命題입니다.
생명의 猥敬을 담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의지를 바칩니다.
發 (祝) 展
開校72周年 東國祝典
동아제약 중앙연구소는 지금이 21세기라고 생각합니다.

建學理念 살린 祝典을

社說

해마다 봄철이되면 각 大學에서는 大小의 祝祭를 벌인다. 올봄만 보더라도 이미 祝典을 하고 있는 大學이 있는가하면 앞으로 곧開催할 豫定으로 있는 大學들이 많다. 本大學校에서도 오는 5월 8일 開校72주년을 맞아 祝典을 열게 된다함은 이미 周知된 바라하겠다.

올해의 東國祝典에 대한 큰 施行計劃을 삼필것 같으면 예년과별로 다를것이 없다. 즉 每年과같이 學術祭를 비롯하여 藝術祭 民俗祭 힘의祭典등의 행사들이 베풀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구체적인 細部行事는 작년의 祝典의 경우보다 한층 다양해진 것 같이 생각된다. 이런觀點에서 본다면 東國祝典도 해마다 한결음씩 發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것이다.

본래 祝祭라고 하면 그 한 뜻이 그를 主催하는 측의 성격에따라 그 集團의 表象을 구현시키는데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東國祝典을 東大에서 베푸는 이상 당연히 학문의 集團現象이 축제 행사를 통하여 짙게 나타나야 할줄로 안다. 大學祝祭를 이야기할 적에무엇보다 먼저 學術祭를 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事由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여 대학축전에 있어서는 학술강연이나 학술세미나 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란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의 東國祝典計劃을 훑어보건대 學術祭의 比重이 지난해 祝典의 경우보다 좀더 하다는 아쉬운 感을 들게한다. 昨年 祝典때의 學術講演이나 學術세미나에 대한 교수, 학생들의 參與度가 획박했었고 그에따라 그 意義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에 그 比重을 증였는지는 모르겠다. 만약 그와같이 主催當局이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每年 經驗하였듯이 祝祭期間中에는 正常授業까지 中止하면서 오로지 祝祭行事에만 熱을 올린다. 그렇다고 敎授가 出勤하지않아도되고 또한 學生이 登校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님은 물을것도 없다. 大學祝典에서는 正常講義와 비롯한 學術大會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授業을 全廢하면서 祝祭를 盛大하게 치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角度에서 고려하더라도 大學祝祭에서 學術祭는 큰比重을 차지하지 않을수없는것이다. 爲하는데는 우선 學術祭를 열띠게營따라서 우선 施設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한다. 사실 일시 방편으로 敎室을 學術大會의 會議場으로 사용해봤댔자 거기서 熱띤 發表나 討論이 展開될 까닭이 없고 새로운 着想이 떠오를 리가 없다. 그리고 다음에는 學術祭의 內容이 問題안될수 없을것 같이 생각된다. 正常講義의 中止로 틈이 생긴 교수나 학생의 關心을 끌수있는 課題을 선정한다는것이 重要하다할것이다. 교수와 학생들의 興味를 끌만한 問題들을 中心삼아 學術祭를 열때, 교수 학생들의 그에대한 夢與度가 높을 것은 自明하며 또그것은 意義도 찾게되는것이다.

한편 어느 大學의 祝典을 不問하고 祝祭行事를 엿본다면 一般的으로 學術講演會나 學術세미나같은 行事에 比해서 노래자랑을 비롯하여 其他娛樂같은 行事가 盛旺을 이룬다. 祝祭의 다른 한뜻이 환희와 演藝의 機會에 있고 또한 戀愛文의 전달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盛大하게 進行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學生들이 祝祭의 참뜻을 완전히 이해하고있다면 이럼 饗宴行事에 못지않게 學術行事에도 크게 參與할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운 마음에서 한마디 해둘 뿐이다.

그뿐아니라 昨年 祝典의 饗宴行事에서의 學生들의 才幹이나 솜씨의 비상함에는 정말 놀라지않을수 없었다. 學生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재주와 간능을 얼마든지 發揮할수있음을 우리는 깨달을수 있었고, 이 能力을 개발해 學術祭에 있어서도 發揮해주기를 당부해두고 싶을 따름이다.

지난해의 東國祝典에 있어 눈에 거슬렸던 일은 음료수등의 판매행위라고 할수있다. 이곳 저곳에 나설 정도로 이곳 저곳에 散在되어 있었음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클라동과 같은 同一種類의 商品販賣場이 많았다는 點이다. 祝祭行事가 있으면 으레 그와같은 販賣業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올해에는 그數을 制限하는것이 어떨까한다. 동시에 같은 商品을 여기 저기서 다루어 파는 것보다는 商品의 種類도 多樣하게 取扱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그밖에도 各販賣場의 팻말을 붙것 같으면 마치 特定商品의 선전이나 해주고 있는듯한 인상이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럼 대목에 대하여서도 關與學生들은 적지않게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한다.

아울러 올해의 東國祝典이 단순한 年例行事로 그치지말고 意義깊게 進行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小說 以問의 形態

1

北韓의 小說에는 誤字가 보이지 않는다. 誤字도 있고 脫字와 覆字까지도 간혹 나타나는 南韓의 소설과 비교할때 그것은 아주 작은 그러나 매우 흥미있는 하나의 차이가 될것이다. 단 하나의 오자도 거부하는 그철저함과 긴장감이 의미하는 것이란 글자와 글자 사이, 行間과 行間마다 스며 있는 문화적 질식감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의 문화적차이란 ＜誤字가 있는 文化＞와 ＜誤字가 없는 文化＞의 차이라 지적될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南北의 문화적 이질화를 암시하는 하나의 단서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가슴마다 分母的으로 서려있는 통일에의 悲願과 국토분단에 대한 고통은, 남북이질화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족적 同質性의 희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요구하는것이며 어떤유형의 樂觀論이나 悲觀論도, 남북통일의 論理的 실제적 기반이 파괴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탐구될수 있기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小說이야말로 북한주민의 생활과 정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추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하는 삶의 원천적인 이해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온당한 텍스트가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2

北韓의 小說史記述에는 南韓의 小說史와 기본적으로 다른 두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하나는 물론 社會主義的 文學史方法論에 의해서 記述資料가 취사선택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漢文으로 表現된 것(예컨대 茶山燕岩 김삿갓 등) 까지도 당연히 文學史의 基本資料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小說史는 檀君神話와 각종 說話가 생략된채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전개된다. (朝鮮文學史」60년11월15일 교육도서출판사간행)

鞏說文學→金鰲新話→洪吉童傳→謝氏南征記등→판소리와 小說→朴趾源→申在孝→羅稻香→최서해→조명희→리기영→강경애→리북명→윤세중→천세봉등. 「조선문학사」에 의하면 ＜18세기 말 발전한 사상가 이며 사실주의문학 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는 朴趾源을 轉換點으로 해서 나도향등의 ＜비관적 사실주의＞를 지난 뒤, 마침내 리기영에 이르러 社會主義的 寫實主義 문학이 이방에 확립되는 것으로 北韓小說史는 記述된다. 특히 리기영은 南北分斷이후 오늘날까지도 北韓의 小說을 대표하고 있다. 그동안 이태준·한설야·김남천등 동료월북작가들이 숙청되고 리기영은 계속해서 肅淸되 들로 리기영의 文學的 比重이 없어 北韓文學의 상징처럼 굳어 버리게 되었던 것같다.

그러나 60年代와 70年代에 들어서서 상당수의 新人들이 배출된 것이 사실이고, 이들에 의해서 北韓의 새로운 小說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리기영의 文學을 통해서 오늘날의 北韓을 理解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 점을 늦은 감마저 갖게된다.

3

北韓小說의 主要內容은 ①反帝反封建民衆鬪爭 ②地主와 資本家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계급투쟁 ③社會主義 革命鬪爭, 社會主義工業建設과 協同農場體制樹立에 수반하는 封建 부르조아 잔재와의 투쟁 ④6·25를 중심으로한 美國·南韓과의 투쟁 ⑤南韓에 대한 비판과 선동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 것같다. 이와같은 北韓小說을 통해서 드러나는 몇가지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수 있을 것이다.

北韓의 언어가 南韓의 언어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北韓은 「朝鮮文化語」라는 것을 만들어내였고, 이것은 南北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標準語를 사실상 거부한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文脈의 문제에 있어서 도 현저하게 보여지는 것이 日常語나 구어체의 결핍이다. 작품에 사용되는 언어는 지극히 객관적인 散文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체로 文彩(Figure)가 빈약한 平叙文이 대종을 이룬다. 對話에 있어서는 卑屬語 계동의 쌍말, 은어, 욕두문자등이 전혀보이지 않고 (지주놈, 資本家놈, 美帝 日帝새끼들등 적대적 표현은 예외) 경직된 演說體의 어투, 판에 박힌 평서문 이상의 주인공이 수평 金日成」에게 忠誠을바치는 두 명의 주인공이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서 비판 받아야 할 경우, 그가 바로 소설의 敵役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中篇「사랑의 씸」(김승한作 文藝出版社 1975年) 둘째, 事件의 구성에 있어서 카프時代만 하더라도 定石처럼 되어있었던 문제, 즉 소설의 결말을 죽음과 自殺과 放火와 파괴로 매듭짓던 방법이 철저하게거부되고 전체적인 의미의 ＜幸福한 終結＞로 이룩되거나 ＜위대한 혁명＞의 勝利로 종결된다는 점이다.

北韓의 소설이 행복한 종결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들이 무엇보다도 개인의 허무 인 잔재가 아니라 「위대한 어버이 수령 金日成」에게 忠誠을바치는 두 명의 주인공이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서 비판 받아야 할 경우, 그가 바로 소설의 敵役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中篇「사랑의 씸」(김승한作 文藝出版社 1975年) 의 경우＞

둘째, 事件의 구성에 있어서 카프時代만 하더라도 定石처럼 되어있었던 문제, 즉 소설의 결말을 죽음과 自殺과 放火와 파괴로 매듭짓던 방법이 철저하게거부되고 전체적인 의미의 ＜幸福한 終結＞로 이룩되거나 ＜위대한 혁명＞의 勝利로 종결된다는 점이다.

北韓의 소설이 행복한 종결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들이 무엇보다도 개인의 허무 명백한 立證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로 人物의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형적 人間像을 형상화하도록 요구된다. 소설에 등장하는 전형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천태만상의 인간형을 선택할 수 있는 創造的 自由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制限과 黨이 요구하는 人間型의 테두리 안에 拘束된다. 북한의 한 評論家가 제시한 ＜典型의 創造＞에 대한 몇가지 조건은 ①勤勉性 ②자기 사업에대한 榮譽感 ③黨과 조국앞에서의 獻身性 ④낙관을 극복해 나아가는 강인성과 불요불굴의 英雄性 ⑤동지에 대한 우애와 협조 ⑥집단에 대한 忠直性 ⑦前進과革新의 성격등인바 이러한 조건들은 ＜온갖 多樣한 性格의 統一속에서＞했고려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제된다.

전형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金日成을 주인공으로한 일련의 작품들에 나타나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모든 소설이 도달하는 理想的 地點과 理論的 결론은 金日成 한사람에게 귀결되지만 특히 金日成을 주인공으로한 「革命의 려명」「1932년」「만경대」「백옥의 천리길」「동트는 알록산」등의 작품들은 金日成을 전형 중의 전형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가장 이상적이고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神話나 傳說 속의 인물처럼 非現實的으로 그려놓고 있다. 이와같이 한 사회의 모든 문학이 개인 하나를 위해서 바쳐지게 하고 神秘化하고 虛構化해 버린 예란 東西古今의 文學史속에서 그 비슷한 경우도 찾아 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人類文藝史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이 노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한 작품들을 몇편 내놓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처럼 이렇게 수령님의 혁명 역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한 총서를 시대는 알지 못하고 있다＞ (조선중앙연감」1974年판) 고 이들은 오히려 人類文學史가 해결하지 못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코 인간의 이성과 진실에 대해서 다소나마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다수자가 참여한 政治集團의 沒常識한 政治的 계획으로서도 인정하기 어려운것이고 차라리 음험하고 잔혹한 邪敎集團의 카리스마적 횡포로밖엔 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4

北韓小說의 素材 구성과 人物의 선정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素材의 구성 원칙에는 主役(protagonist)과 敵役(antagonist)의 한계가 매우 분명하다는 점이다. 최초의 단계는 無産者階級과 地主, 民衆과 日帝와의 투쟁이 모든 소설의 素材構成의 공격이 되고, 두번째의단계는 「美帝 또는 南朝鮮」와의 갈등이고, 다음이 봉건 잔재, 또는 個人主義 利己主義 悲觀主義 등 부르조아 잔재와의 갈등이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경향이 하나 더 첨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소설의 敵役이 外部的인 것이나 반동적 인 것이 아니라 「위대한 어버이 수령 金日成」에게 忠誠을바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어버이 北韓文學의 상징처럼 굳어 버리게 되었던 것같다.

그러나 60年代와 70年代에 들어서서 상당수의 新人들이 배출된 것이 사실이고, 이들에 의해서 北韓의 새로운 小說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리기영의 文學을 통해서 오늘날의 北韓을 理解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 점을 늦은 감마저 갖게된다.

5

北韓小說에서 소재의 충실한 소화와 이해의 태도를 먼저 지적할수 있을 것 같다. 어떤 作品이든지 선택된 소재에대해서 거의 完璧에 가까운 現場體驗이 수반되어있는 것 같고, 소재의 해석에 상당한 자신감마저보인다. ＜作家, 藝術人들이 平壤에만 앉아있어서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읍니다. 사람을 흥분시키는 생활과 투쟁은 工場에 가야 볼수 있으며 農村에 가야 體驗할 수 있읍니다＞ (金日成著作選集 2卷 580) 라고 金日成이 지적한바 있는데, 실제 북한 작가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現場에 파견되어 소재를 익히고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作家들이 소재를 작품로 선택할 權利나, 또한 그대야할 理由도 갖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創作行爲는 매우 사무적으로 계획된 黨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으로 밖에 볼수 없다. 그것은 그들의 創作指針과 소재의 내용이 黨으로부터 하달되는 構造的인 制度를 통해서나 作家 자신이 매년 初에 年間創作計劃의 報告書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짐작할수 있다.

北韓小說에 있어서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로, 北韓의 小說創作方法에 관한 문제로 北韓의 小說이 근본적인 실패를 저지르고있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北韓의 理論書籍에서 누누히 발견되는 바와 같이 北韓小說의 形式의 유일한 文學精神과 文學의 形式的 추구는 모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이며, 그것은 극도의 객관성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그런데 作品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바로 객관적 묘사나 표현의 形態에 北韓의 小說이 小說의 形態만 갖추었을 뿐 小說 이전의차원에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小說에다 金日成의 총성실을 표현하게 되어 있고, 金日成의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객관적 사실주의적으로 전개되던 小說이 당장 小說도 다른 무엇이라고도 볼수 없을 정도로 金日成에 대한 경배 예시지로 돌변한다. 이점에 있어서는 가장 中立的이어야할 評論도 마찬가지다.

70年代 北韓小說은 人主體의 文學藝術論＞＜종자론＞＜속도전의論理＞등으로 斷承되고 있으나 金日成의 절대권능과 전지전능을 에찬하고, 그 방면으로 더욱 강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시킨다.

그것은 邪敎的 카리스마—그것이 北韓小說의 슬픈 存在理由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강종 原文引用은 대부분 제외하였음. —編輯者＞

오늘의 北韓文學

질식감속의 「誤字없는 文化」

이무저 現場體驗에 事務的 創作行爲

演說體 어투, 觀念的 人物 투성이

洪起三 ＜評論家·본교교수＞

발전하는 경향이 보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作品에 나타난 言語문제를 본다면 두엇보다 言語的 문맥(Verbal Context)보다도 社會的 또는 物理的 문맥(Physical Context)으로 본다면 南北韓의 동일한 어휘도 그 해석이 점점 다른 것으로 점차 달라지고 있음이 그 한 예이다. 이러한 어휘의 의미의 변화는 이미 오늘날 이미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서 비판 받아야 할 경우, 그가 바로 소설의 敵役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中篇「사랑의 씸」(김승한作 文藝出版社 1975年) 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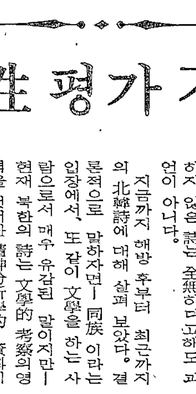
둘째, 事件의 구성에 있어서 카프時代만 하더라도 定石처럼 되어있었던 문제, 즉 소설의 결말을 죽음과 自殺과 放火와 파괴로 매듭짓던 방법이 철저하게거부되고 전체적인 의미의 ＜幸福한 終結＞로 이룩되거나 ＜위대한 혁명＞의 勝利로 종결된다는 점이다.

北韓의 소설이 행복한 종결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들이 무엇보다도 개인의 허무 명백한 立證에 불과한 것이다.

셋째로 人物의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형적 人間像을 형상화하도록 요구된다. 소설에 등장하는 전형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천태만상의 인간형을 선택할 수 있는 創造的 自由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制限과 黨이 요구하는 人間型의 테두리 안에 拘束된다. 북한의 한 評論家가 제시한 ＜典型의 創造＞에 대한 몇가지 조건은 ①勤勉性 ②자기 사업에대한 榮譽感 ③黨과 조국앞에서의 獻身性 ④낙관을 극복해 나아가는 강인성과 불요불굴의 英雄性 ⑤동지에 대한 우애와 협조 ⑥집단에 대한 忠直性 ⑦前進과革新의 성격등인바 이러한 조건들은 ＜온갖 多樣한 性格의 統一속에서＞했고려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규제된다.

전형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金日成을 주인공으로한 일련의 작품들에 나타나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모든 소설이 도달하는 理想的 地點과 理論的 결론은 金日成 한사람에게 귀결되지만 특히 金日成을 주인공으로한 「革命의 려명」「1932년」「만경대」「백옥의 천리길」「동트는 알록산」등의 작품들은 金日成을 전형 중의 전형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가장 이상적이고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神話나 傳說 속의 인물처럼 非現實的으로 그려놓고 있다. 이와같이 한 사회의 모든 문학이 개인 하나를 위해서 바쳐지게 하고 神秘化하고 虛構化해 버린 예란 東西古今의 文學史속에서 그 비슷한 경우도 찾아 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人類文藝史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이 노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한 작품들을 몇편 내놓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처럼 이렇게 수령님의 혁명 역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한 총서를 시대는 알지 못하고 있다＞ (조선중앙연감」1974年판) 고 이들은 오히려 人類文學史가 해결하지 못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코 인간의 이성과 진실에 대해서 다소나마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면 다수자가 참여한 政治集團의 沒常識한 政治的 계획으로서도 인정하기 어려운것이고 차라리 음험하고 잔혹한 邪敎集團의 카리스마적 횡포로밖엔 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具常 ＜詩人＞

詩的 추상성 말살돼

文學性 평가 不可能

국토통일원 主催 發表要旨

本稿의 根據資料로서는 統一院이 비치한 北韓 출판의 시집 25권과, 북한 작가동맹 기관지인 月刊 「朝鮮文學」誌와 「朝鮮文學史」를 비롯한 북한의 詩文學이 언급되고 있는 北韓·日本의 資料集과 國內의 출판물들이다.

북한의 詩作品들은 일반적으로 詩에 대한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創作藝術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특색이다. 本稿에서는 그 詩文學的 논의나 예술적 비평보다는 해방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북한의 詩가 변천되어간 推移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946년 8월 해방 1주년 기념으로 나온 詩集 「北風」 平壤 카프系 詩人들과 新出공산당원 詩人들이 경향시를 쓰고 「붉은 軍隊」 찬양에 나섰다해도, 그것은 自發的인 것이었고 전반적으로 主題나 素材에 있어 자유롭고 다양했었다.

그러나 文學藝術人들을 單一組織으로 묶고난 후 46年末 詩集 「應答」의 斷罪한 사건을 想起시킴으로써 북한의 詩創作은 물론 文學全般이 완전히 政治에 예속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들의 변문학적 命題로는 「文화와 예술은 人民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소위 金日成의 교시로 답답하게 되었다.

이 무렵 그들이 문학사에서내세우는 詩들은 소위 土地改革을 찬미한 김우정의 『농촌 위원회의 밤』 등과 당시의 代表作으로 일컫는 金日成 우상화를 위한 趙基天의 서사시 『白頭山』만 보아도 詩的形構成은 물론 그 雅拙함과 시이념의 빈곤이 그들의 문학사에서 내세우는 詩들은 소위 土地改革을 찬미한 김우정의 『농촌 위원회의 밤』 등과 당시의 代表作으로 일컫는 金日成 우상화를 위한 趙基天의 서사시 『白頭山』만 보아도 詩的形構成은 물론 그 雅拙함과 시이념의 빈곤이 그들의 문학사에서 내세우는 詩들은 소위 土地改革을 찬미한 김우정의 『농촌 위원회의 밤』 등과 당시의 代表作으로 일컫는 金日成 우상화를 위한 趙基天의 서사시 『白頭山』만 보아도 詩的形構成은 물론 그 雅拙함을 알게 된다.

따라서 詩語란 삼펴 박도 「따발총」 「원수」 「북수」 「중오」 등의 살벌한 용어들과 입에담지 못할 욕설만 나열할 뿐이었다.

이무렵 특기할만한 것으로는해방전부터 左翼의 거두시인이었던 林和의 활약이다.

그의 시 『너 어느곳에있느냐』와 『바람이여 전하라』 등이며 「인간정」 에대한 표출이 있었지만, 이시편들은 狂奔분자들의 지탄을 받게되며, 이때 林和의 시는 공정적으로 지지했던 최초한의 시인적양식을 가진 越北문인들이그의 숙청과 더불어 문죄, 숙청당하게 된다.

따라서 詩語란 삼펴 박도 「따발총」 「원수」 「북수」 「중오」 등의 살벌한 용어들과 입에담지 못할 욕설만 나열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시는 北韓시의 特長으로 소위 영웅서사시의 효시인 것과 더불어 金日成우상화의 先鞭의 시이기도 하다.

6·25동란기로 넘어가면 북한의시는 南侵을 당성하기위한 일종의 격문이 되고있을 뿐이다.

그러나 文學藝術人들을 單一組織으로 묶고난 후 46年末 詩集 「應答」의 斷罪한 사건을 想起시킴으로써 북한의 詩創作은 물론 文學全般이 완전히 政治에 예속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들의 변문학적 命題로는 「文화와 예술은 人民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소위 金日成의 교시로 답답하게 되었다.

이 무렵 그들이 문학사에서내세우는 詩들은 소위 土地改革을 찬미한 김우정의 『농촌 위원회의 밤』 등과 당시의 代表作으로 일컫는 金日成 우상화를 위한 趙基天의 서사시 『白頭山』만 보아도 詩的形構成은 물론 그 雅拙함과 시이념의 빈곤이 그들의 문학사에서 내세우는 詩들은 소위 土地改革을 찬미한 김우정의 『농촌 위원회의 밤』 등과 당시의 代表作으로 일컫는 金日成 우상화를 위한 趙基天의 서사시 『白頭山』만 보아도 詩的形構成은 물론 그 雅拙함을 알게 된다.

이무렵 특기할만한 것으로는해방전부터 左翼의 거두시인이었던 林和의 활약이다.

그의 시 『너 어느곳에있느냐』와 『바람이여 전하라』 등이며 「인간정」 에대한 표출이 있었지만, 이시편들은 狂奔분자들의 지탄을 받게되며, 이때 林和의 시는 공정적으로 지지했던 최초한의 시인적양식을 가진 越北문인들이그의 숙청과 더불어 문죄, 숙청당하게 된다.

그의 생명, 인간으로서의 짧막한 생애, 그것은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그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따름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목적을 제시해주기 위한 것이였을 따름이다.

지금 그는우리들사이에 계시다. 더 아름다운 꽃처럼 더푸른 신록처럼 더 소박한 소년의 얼굴처럼 그리고 사리사욕의 때만벗기면 거기에계시고 어머니들의 마음씨처럼 거기에계시는 부처님계신 곳이다.

이마음의 때를 벗기지않고 또 무슨 낯으로 그를 경하하려할수 있겠는가?

부처님 계신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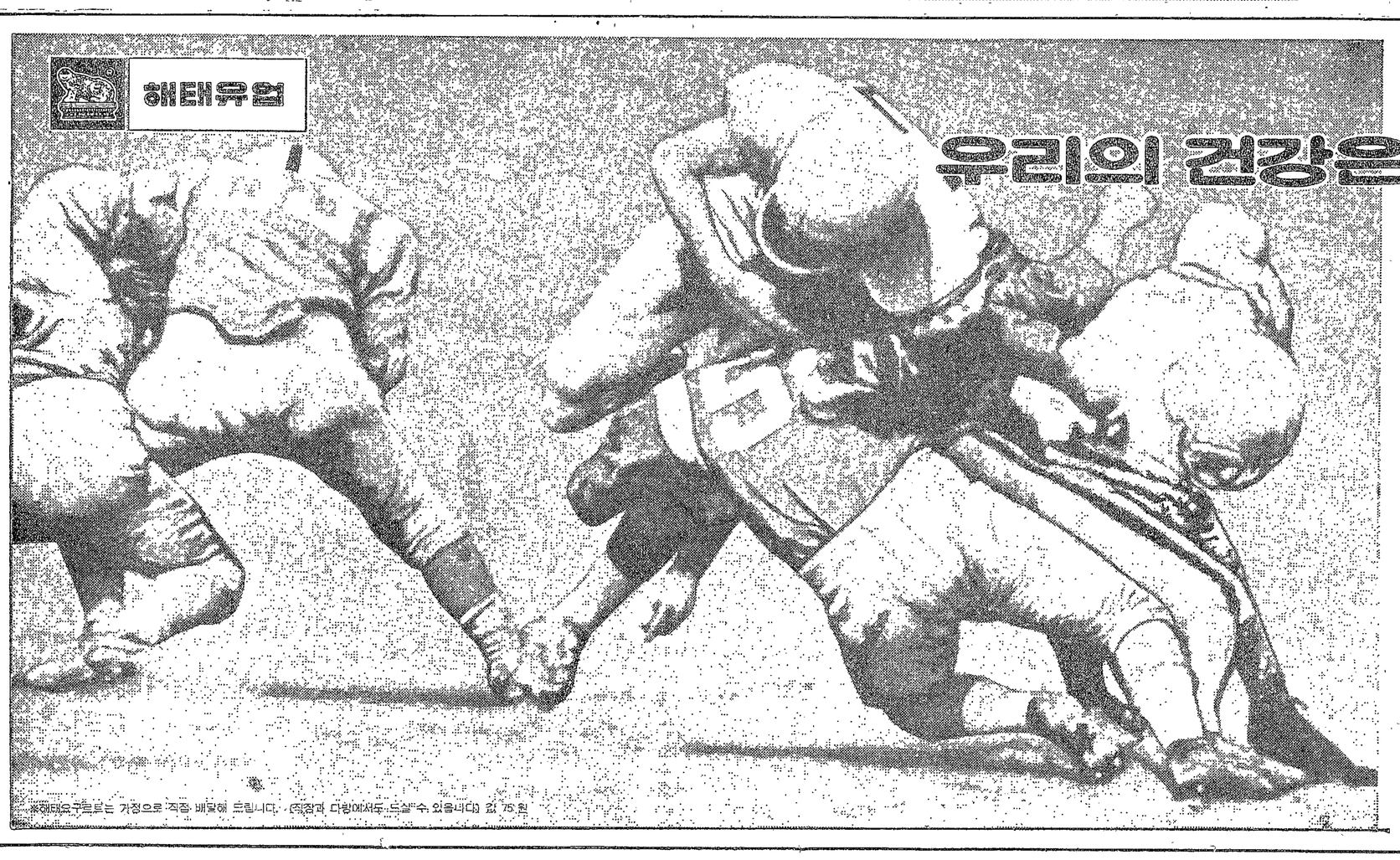
李箕永 ＜佛敎大 敎授＞

慶(祝)展

開校72周年 東國祝典

해태구연

우리의 건강은 해태요구르트



*해태요구르트는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직장과 다방에서도 드실 수 있읍니다) 값 75원

●해태요구르트는 특수배양된 유산균으로 비타민 B군을 만드는 살아있는 유산균입니다.

●해태요구르트는 국제규모의 최신 자동시설과 U.H.T. PASTEURIZER(초고온 순간살균기)로 생산되는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고급 유산균 발효유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약속하는 해태요구르트를 드세요.

學問의 世界

專攻으로 가는 길

學育敎數學

洪 錫 强

<師範大敎授>

I. 數學敎育의 重要性

20세기초부터 高度의 科學技術이 산업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커지게 되어 바야흐로 전인류의 理想이던 우주정복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인간생활의 여러분야에서 큰변화를 가져 왔으며 經濟, 政治, 社會의 人文分野에 있어서도 이 과학 기술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 되고있다。 이러한 高度의 과학기술 발전에는 그 根底에 數學이란 필수불가결의 學問이 심심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있는데 이것은 人間이 이세상에 태어날때 부터 敎理의 槪念에 입각하여 生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즉 太初부터 이세상에 주어진 모든 自然法則의 발견과 자연에 대한 理解에 따라 오늘날의 自然科學의 발전을 낳게되고, 역사가 흐름에 따라 經濟學, 哲學, 神學, 言語學等의 모든 人文分野의 學問에 이르기까지 數學的인 해석을 통한 새로운 法則의 발견으로 학문적인 발전을 계속해왔다。 이와같이 數學敎育은 自然科學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필수적인 기초 학문으로서 새삼스럽게 그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數學敎育의 歷史가 西洋에서 비롯된 近代數學이 도입된 후부터 始作된 것으로 생각할때 불과 이란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나마 이 짧은 역사속에서도 數學이란 학문은 自然科學徒에게만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人文分野의 學徒들에게는 전혀 불필요한 理想的이며 추상적인 학문으로, 인정되어 온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서구에서는 數學敎育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일찌감치, 이것을 일찌기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일찌기 數學을 끝 어려운 과목으로 단정짓게 된다。

이런점에 비추어 볼때 우리들은 극민민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이르기까지 과거 12년동안, 수학교육이 아니고 注入式의 敎育에 치우친 나머지, 암기와 숫자의 나열 수방식으로 교육을 받아 왔다。 따라서 대학에 오면 처음으로 배우는 數學基礎論에서 數理的 개념의 도입과정에 큰 저항을느끼고, 이것을 일찌기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끝 어려운 과목으로 단정짓게 된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에서는 數學敎育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미 數學基礎論에서 하는 論理主義(Logicism) 直觀主義(Intuitionism) 形式主義(Formalism)에 입각하여 수학의 개념 구성법, 논법에 관하여 이론적인 면을 구명해야 할것이다。 이런 論法에 비추어 볼때 학문의 理論과 法則을 論證할수있게되고 학문적인 발전과 자연의 발견과 자연의 법칙의 분야에만 속하지 않고 人文社會의 분야에도 속하여 추구를 위한 학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거의 일상생활에서 生活化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런점에 비추어 볼때 우리들은 극민민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이르기까지 과거 12년동안, 수학교육이 아니고 注入式의 敎育에 치우친 나머지, 암기와 숫자의 나열 수방식으로 교육을 받아 왔다。 따라서 대학에 오면 처음으로 배우는 數學基礎論에서 數理的 개념의 도입과정에 큰 저항을느끼고, 이것을 일찌기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찌기 數學을 끝 어려운 과목으로 단정짓게 된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에서는 數學敎育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미 數學基礎論에서 하는 論理主義(Logicism) 直觀主義(Intuitionism) 形式主義(Formalism)에 입각하여 수학의 개념 구성법, 논법에 관하여 이론적인 면을 구명해야 할것이다。 이런 論法에 비추어 볼때 학문의 理論과 法則을 論證할수있게되고 자연과학의 발전과 자연의 법칙의 분야에만 속하지 않고 人文社會의 분야에도 속하여 추구를 위한 학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거의 일상생활에서 生活化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런점에 비추어 볼때 우리들은 극민민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이르기까지 과거 12년동안, 수학교육이 아니고 注入式의 敎育에 치우친 나머지, 암기와 숫자의 나열 수방식으로 교육을 받아 왔다。 따라서 대학에 오면 처음으로 배우는 數學基礎論에서 數理的 개념의 도입과정에 큰 저항을느끼고, 이것을 일찌기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찌기 數學을 끝 어려운 과목으로 단정짓게 된다。

이런점에 비추어 볼때 우리들은 극민민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이르기까지 과거 12년동안, 수학교육이 아니고 注入式의 敎育에 치우친 나머지, 암기와 숫자의 나열 수방식으로 교육을 받아 왔다。 따라서 대학에 오면 처음으로 배우는 數學基礎論에서 數理的 개념의 도입과정에 큰 저항을느끼고, 이것을 일찌기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찌기 數學을 끝 어려운 과목으로 단정짓게 된다。

<26>

敎授法의 多角的 연구 필요

注入式교육 탈피, 이해 重視해야

II. 數學敎育의 現況및 硏究方向

우리나라에서는 文理大 數學科와 師大 數學敎育科를 교과과정 및 교수법, 교수법에서 필요한 특수 교육학적인 이론에 교육학적인 면에서 비추어본 중고교 수학교과 및 대수학의 교수법, 기하학의 교수법, 해석학의 교수법에서 필요한 연구, 수학교수법의 역사, 또 수학성적이 극히 불량한 학생을 위한 성적진단및 교정법, 지진아를 위한 특수교수법 등의 연구를 연구가 필요하다。 또 이러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두어교육자료의 수집, 이론에바탕을 두어 분석검토, 假說검정등을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알맞는 수학교육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數學敎育을 전공하는 학생은 數學이란 학문자체의 기초적 연구를 열심히하고 이런 연구를 교육적인면에 활용하기위하여 콤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FORTRAN, 數値解析등의 콤퓨터 科目을 열심히 나아가서는 통계학적인 수학과 자료의 분석, 검토등으로 수학교 수법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측통계학 표본조사론 실험계획법등의 통계학과목도 공부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과정을 이수한 후에 교과과정의 개선학습지도법 재평가, 심리학적인 면에서본수학이론의 발전 도입방법등의수학교수법의 발전을모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학교육과라는 책임을 다하기위해서는중고교교사의 교사스스로의 연구 및 재교육을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강사진을 갖추어 과학세 후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환 할수있도록 도서 및 교육기재 학생실험및 교육 및 해외 유학 및 해외 견학 및 교수법 및 교수법에서 필요한 특수 교육학적인 이론에 교육학적인 면에서 비추어본 중고교 수학교과 및 대수학의 교수법 및 기하학의 교수법 해석학의

원놀이 부락민의 自治性 내포

江原道南部지방民俗採集에 의해

50年前 演戲 단절

兩班 선망에의 脫出口구실

I、「원놀이」沿革

「원놀이」는 영동지방인 江原道南部 三陟·北坪지방을 중심으로 傳承되어왔고, 그 분포지는 慶北 青松·安東·義城과 英陽郡·奉化郡·榮州郡·蔚珍郡 등지이다. 이 演戲은 1900년경까지 傳承되다가, 중단되었기때문에 자료조사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筆者가 직접 三陟郡北坪邑 여러 마을을 民俗採集하여 生存 演戲者에게서 資料를 제공 받을수 있었다.

北坪大口里 鄭應敎옹(75)에 따르면 青年期 이전에 演戲에 참석했다고 증언한다. 따라서 50~60년 이전에 演戲가 중단 되었음을 알 수 있다. 近年에 慶北의 英陽 등지나, 이 三陟 北坪지방에서 傳承 하려고 힘쓰고 있는데, 아직 재정적 문제나 演戲者 傳承빈곤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한다.

부락민들이 말하는 이 演戲의 이름은 「덕교」(鐙橋의 訛音인듯하다) 이며, 이는 곧 「다리밟기」 이다. 또 이외에 「사또놀이」 「관원놀이」 「원님놀이」 라부른다. 慶北지방에서는 보통 「원놀음」 이라 한다.

그 由來를 밝히는데는 文獻不實로 問題點이 있어 원놀이에서 직접 演戲한 傳承 보유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演戲에 직접 급창 악공으로 참가한 鄭응에 따르면 『三陟이 벽지이고 淺地여서 한사람의 의원도 내지 못했다. 地方兩班들의 官職에의 허영과 소망을 메워주는 구실로 정월 대보름을 절정으로 약 10일 가량 演戲하였다』고 한다.

또 北坪邑 松汀里의 洪鍾元옹(75)은 「원놀이」에서 사령으로 演戲했다고하는데 洪옹에 의하면 『서당 공부를 하거나 글공부하는 자식들에게 열심히 정진하여 높은 벼슬이되라는 모범적인 演戲』라고 한다. 따라서 鄭·洪兩翁의 증언을 종합하면 地域·社會的인 外向的인面, 양반에대한 열망에서 오는 발출구로 演戲된 것으로 兩班民俗舞踊의 由來라 보겠다고 하니 「원놀이」가 관심거리 임을 알 수 있다. 원으로 선출되는 사람은 富有하고 마을에서 송망받는 풍월 잘 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원으로 뽑히는 것은 최고의 명예로 생각돼, 演戲日에 무질하게 마을사람을 대접한다. 그것은 질서유지를 하면서 행하고 행진할 때 風樂을 잡히기도 한다.

모의재판은 그지방에서不孝등의 잘못이 있는 죄인을 잡아 다스린다. 재관녀용은 戲謔的인 것이어서, 官長의 부당한 횡포를 풍자하기도하고 웃기는 놀음을 위해 우리의 순한 論理가 단적으로 인상황에따라서 달라진다.

모의재관전에는 원님집에서(마당) 보통 자기위치에 홍겹게 논다. 그때초장에 춤, 이장에도 춤, 다음에 춤, 이장에도 춤, 다음에 굿거리춤, 걸무춤(잘춤) 한 踏橋놀이라상통되며 앉다고 하니 「원놀이」는 서 관직을 구현하는 데 그 뜻을 두었으나 江原道 南部地方은 복합적이고 多面的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 마당놀이라하여 일종의 抱神밟기를 했기에 嶺南地方의 民俗演戲의 특색도 지니며

둘째, 어느 마을이나 원行次에 다리를 밟기로 했으니 이것은 서울에서 행한 踏橋놀이라상통되며 ④九美里=順力踏橋로 활기넘치는 원놀이를 演戲함. ⑤丹鳳里=文鶴踏橋로 글과 道具도 歷史的 考證이 있어야 되리라본다. 대상에 대하여 民俗學的인 측면, 극구성 공연양식도 연극학적으로 다듬어 져야 하리라 본다. 그러니 이에 대한 論景도 이해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 筆者는 사족이나마 다음을 언급해 둔다.

양반(선비의 지침도 되겠다) 에대한 民俗演戲가 그리 많지 않으니 계승시킬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 演戲는 인원이 2백~3백명 참가할수 있는 汎集團的이고 총화적 연희라해도 과언은 아닐성 싶다.

II、登場人物·假衣裳·道具·樂器·樂士

①원 (원님) 1人=李朝골원 (지금의 군수급 정도) 이 입었던 의상에다 지휘봉을 들고 위엄있는 假裝을 한다. (사헐교)

②실내부인 (원부인) =역시 李朝衣裳 차림과 아울러 綾羅2人 따름. 사령교 (실내부인가마)를준비한다.

③六房官屬 (吏·戶·禮·刑·兵·工房) =李朝 六房官屬 衣裳. 기타 차림.

④前導者 (질라정) 2人=털벙거지, 큰 소매의 흑의복 도포, 잡인금지 역할

⑤나팔 부는 者1人=다양 색깔의 꼬깔, 보통 樂工의 의복

⑥日傘잡이1人=흑의복과 헹빌가리 우산을들고 가장 인 「어이여」 등의 곤마성 벽제성 부름

⑧後輩2人=同一

⑨執事2人=털벙거지에청황색 의복, 패자와 패동계가장, 나열시키고 질서유지에 힘쓴다

⑩都使令2人=털벙거지에 흑의와 붉은 소매

⑪원교자4人=원가마 미는사람, 흑의복

⑫실내부인교자4人=同一

⑬樂工10~20人=三絃六角 장구 (長鼓) 1人, 북 1人, 징 (鉦) 1人, 재파리1人, 해적 (胡笛) 2人, 퉁소 (洞簫) 2人, 피리 (草笛) 2人 꿩꼬리2人 등.

⑭아전 (禮吏) 10人=각, 도포 차림.

⑮勞子10人=패재 (점핀)에 방자복.

⑯通人10人=뒷머리 곽아 총각 차림하고 패재와 조 구실로 演戲된 것으로 兩班民俗舞踊의 由來라 보겠다.

⑰妓生10人=남자가 假裝 비녀 지름, 다양의 색으로 치마, 저고리 입음. ⑱使令10人=털벙거지에 흑의, 붉은 소매 달고 평의 상 차림.

⑲將校2人=덩저고리와갓으로 假裝을 구성하여 演戲日에 마을을 한바퀴 도는 行次를 한후 넓은 장소에 좌정 (衙舍東軒) 하고 이 예가 끝나면 訟事를다루는 일종의 模擬裁判놀이를 한다. 원의 行次는일산전배 집사 六房官屬·도원을 門中 돌림으로도뽑아 사령 원 후배 실내부인악공 通引 羅卒 아전방자使令 등의순인데대개 융통성이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여 「원님놀이」는 또마을간의 「원놀이」 라부른다) 직접 戲者에게배운다) 北坪邑마을 경정도 있는데, 北坪邑마을의 특징적인것은 다음과같다.

①大國里=腹色踏橋로 현지고을에 가서 직접 색의복을 빌려서 입고 행진하는 것이다.

②松亭里=人間踏橋로 대하람신다」 하면 급찬이하를 은 「에이」 하고 일제히 춤과 樂器로 열과 순서로서 움직인다 한다.

③酒雲里=風樂踏橋로 노래와 춤을 잘한다.

III、演出內容

部落民들이 六房官屬이하 관속에 관계한 사람으로 假裝을 구성하여 演戲日에 마을을 한바퀴 도는 行次를 한후 넓은 장소에 좌정 (衙舍東軒) 하고 이 예가 끝나면 訟事를다루는 일종의 模擬裁判놀이를 한다. 원의 行次는일산전배 집사 六房官屬·도원을 門中 돌림으로도뽑아 사령 원 후배 실내부인악공 通引 羅卒 아전방자使令 등의순인데대개 융통성이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여 「원님놀이」는 또마을간의 「원놀이」 라부른다) 직접 戲者에게배운다) 北坪邑마을 경정도 있는데, 北坪邑마을의 특징적인것은 다음과같다.

①大國里=腹色踏橋로 현지고을에 가서 직접 색의복을 빌려서 입고 행진하는 것이다.

②松亭里=人間踏橋로 대하람신다」 하면 급찬이하를 은 「에이」 하고 일제히 춤과 樂器로 열과 순서로서 움직인다 한다.

③酒雲里=風樂踏橋로 노래와 춤을 잘한다.

◇「원놀이」중의 양반행차 광경.

〈文理大 英文科〉 조 성 원

〈師範大 國敎科〉 李 昌 植

「정복되지 않는 女子」

「맥토」, 16日까지 쎄실극장

극단「맥토」의 제17회 공연작 「정복되지 않는女子」 (쉐머쎄트모음작作)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낮4시, 저녁7시반) 쎄실극장에서 공연된다.

이 작품은 외향적인사건들 보다는 인간내면의 갈등 묘사와 국가관을내세워 표현한 것인데, 1941년 당시 독일과프랑스의 이데오로기를한女人을 등장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독일군발발 아래서도 프랑스 국민이 끝내 자기의 주체성을 상실하지않았다는 것을 한 여인의 의식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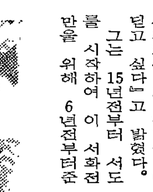
신인 연출가 李重殿씨는 『상징적인 무대처리와 막과 막 사이의 해설도입으로 愛憎과 國家觀에 촛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文化短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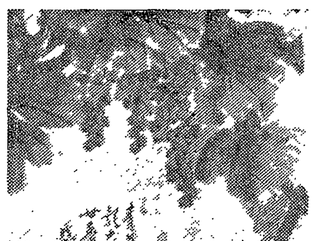
法藏(美術2)書畫展

4日부터 堅志화랑

제1회 「法藏書畫展」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堅志화랑 (조계사건너편)에서 열린다.



◇法 藏 스님



◇法藏스님의 書畫

書藝家인 黃法藏스님은 본교 美術科2학년에 재학중인데, 이 전시회에는 그의 「般若波羅密多心經」 (8曲屛)등 모두 49점이 전시된다.

高麗불교會長 丁奎祥씨는 그의 서예를 『예술적인 感受性과 獨創性이 뛰어나 감탄하지 않을수 없다』고 평하면서 『春城無處不開花(봄동산에 불이 오니 十方이 꽃향기다)』라고 격찬하고 있다.

法藏스님은 이번 서화전을 열게된 동기를 『이 사회의 濟度를 위해 받쳐야할 한 승려의 몸으로서 우선 미흡하나마 서화로써 그 첫발을 내딛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15년전부터 서도를 시작하여 이 서화전을 위해 6년전부터준비를 해왔다는데, 앞으로는 서화전을 통한 수익금으로 자선사업을 벌이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佛敎美展과 高僧초대전에도 수차 출품한경력이 있는 중견으로 「佛法에 不退轉하는 願」을 세우기 위해 붓을 잡는 오른손 검지를 엄비한상태에서 서도를 계속하고 있다.

「佛敎文學講演會」

6日, 조계사대웅전에서

佛紀 2522년 「부처님오신 날」 기념 「佛敎文學講演會」가 韓國僧侶詩人會와 大韓佛敎新聞社주최로 오는 6일 오후3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다.

이날 강연될 연제와연사는 다음과 같다.

▲鄕歌文學의 고찰=金雲學 (문학평론가·본교교수) ▲불교문학의 전통성=金丘庸(시인·成大교수) ▲불교문학과 歷史意識=高銀(시인)

창악회작품발표

창립20주년기념

창악회 (회장 李南洙)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2일과 3일 저녁7시30분 국립창악소극장에서 작품발표회를 연다. 창악회 작곡종쿠르 본선연주회가열린 2일에 이어 3일에는 崔寅植 「소프라노 클라리넷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을 위한 解說」, 李演國 「현악5중주곡」, 李誠載 「플루트독주를 위한 十長生曲Ⅱ」, 조지 크럼 「피아노를 위한 다섯개의 소품」,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네개의 야상곡」과 홍루트 본상수상작품이 연주된다.

公園風情

宋 東 均

새로 만든 公園잔디밭에
용기 중기
어제는 바람결에 찾여간
잠자리채든 童心이 風船처럼 날리더니
오늘은 붉수가루 뿌리듯 가벼운 태양볕이
푸른 樹木바다에 銀光을 일으키며
눈부시게 반사해 온다.

北岳에 머물렀던 비구름이
등을 감추고
祝賀行列처럼 이어진 車 물결은
여기 모두가 騷音을 죽이며
소드금히 키워보는 어린싹들의 꿈에
敬意를 표하고 지난다.

純한 童心과 자주 어울리는 비둘기는
오늘도 위험을 무릅쓰고
복잡한 街道 소음을 열심히 쪼아리고 있는데
모닥불처럼 꽃은
방긴으로 터트려진 넓무덤.

월남의 전쟁터에서 失足된
勇士의 목발도
보금인양 찾아드는 公園 실버들 아래
푸른 하늘깃 한폭의 平和가
귀여운 童心을 타고 살풋 내려 앉는다.

〈詩人·同門〉

바람 부는 날

尹 禪 曉

바람 부는 날
날 찾아 온 딸 아기
두 볼에 홍시가 열렸었다.

서울에서도 멀기만 한곳
그날에사
딸아기 두볼에 영근
홍시를 따려고
겨울 바람결에 띄운 편지 묶음.

해방이 되던해부터
六·二五를 지나고
五·一六도지난 一五년

딸아기 두 볼의 홍시는
벌써 떨어지고
그 자리에
감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詩人·同門〉

메아리

▲『아직 옷을때가 아니다. 언젠가 맞이할 빛나 잿』이라고 날조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그들의 論理가 단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그들의 이 가날프고 값 없는 것은 그들 싼 옷음을 참아 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 對南赤化야욕을 분명히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 모임에서 한中堅 시인이 발언한 뜻있는 一言이다. 그는 우리 민족의 南北 망과 굳충, 그리고 참담한 비극」으로 대변하면서, 이 말의 이 비극적 시대상황에 어떤 옷을소다는 우리의 「이유 있음」도 들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옷음은 바로 우리 현실의 외설이며, 이 분析時代에 대한 책임회피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가장 근원적이고도절실한 문제가 바로 사실상 이 문제보다도 더 火急을 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南北의 同質性과 異質性의 문제를 다시생각케 하며, 이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압답한 희의 늘 관심과 노력의 하나다. 왜냐하면 상반된 政治經制下에서, 그것도 33년이란 세월이 별로노력의 진전도 없이 방치된 그렇다. ▲최근 점수 보면 더더 상수가 실히 확보되어야 될것같다. 함부로 옷고 함부로 발언해도 좋은 太平聖代가아니다. 우리의시대는에 가까운 「社勢青」 위 아니기 때문이다. 〈政〉

「웃음」脫

일民族文學을얘기하는여느 모임에서 한中堅 시인이 발언한 뜻있는一言이다. 그는 우리 민족의 南北 분析을 「절실하고도 참담한 비극」으로 대변하면서, 이 말의 이 비극적 시대상황에 어떤 옷을소다는 우리의 「이유 있음」도 들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옷음은 바로 우리 현실의 외설이며, 이 분析時代에 대한 책임회피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가장 근원적이고도절실한 문제가 바로 사실상 이 문제보다도 더 火急을 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南北의 同質性과 異質性의 문제를 다시생각케 하며, 이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는 압답한 희의 늘 관심과 노력의 하나다. 왜냐하면 상반된 政治經制下에서, 그것도 33년이란 세월이 별로노력의 진전도 없이 방치된 그렇다. ▲최근 점수 보면 더더 상수가 실히 확보되어야 될것같다. 함부로 옷고 함부로 발언해도 좋은 太平聖代가아니다. 우리의시대는에 가까운 「社勢青」 위 아니기 때문이다. 〈政〉

「이사도라·이사도라」 母音社 刊

이사도라 던컨의 自叙傳

영혼의 秘密과 신비告白

現代 무용의 기수 이사도라 던컨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자서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母音社에 의해 柳子孝氏譯으로 출판되었다. 1878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詩人인 어머니와 음악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2남2녀의 가운데 막내딸로 태어나 샌프란시스코 근교 라후라 목의 1929년 9월 최초의 니스에서 사망한 던컨은 낡은 가운데 나타난 49년의 비극적인 생애이다. 『오직 자신이 살고 설정한 규칙 사랑했던 감흥을 동적이다. 그녀의 한평생』이 책은 이 여자밑바닥까지 그녀는 속녀이어 있다. 그리이에스서인의 벗어나 조각가 에근고 대의 사밑 그되어 그녀로서 여기서 순가비 장 나은 의식의 수아 가영혼의비 서는 스러운 가장 게 되 달전에 왔 책을 보면 그녀의 수줍음 속에서 읽힌 지난 날을 기억하며 눈물지으셨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일은 그녀를 추모하는 일뿐이다. 그녀의 맑고 큰 눈과 고운마음이나 많은마음 그리고 그리고 혜경이 결국 發揮하지 못한 비밀을 추측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한 혜경의 모습을 만들고, 두고두고 未來로만 기억할 것이다. 맑하자면 잔다이크 같던 그녀를 우리는 미래의 동물보 기억할 것이다.

어서 가거라. 이 世俗의 잡다한, 원망스런온현실을 접어두고, 새로 태어날 그 땅에서나 그아름다운 꿈 가꾸어 꽃밭 같은 영원의 淨土를 가꾸어라.

〈文理大 英文科〉 조 성 원

金惠卿(「Dongguk Post」前 編輯部長·英文·4) 양 靈前에 바친다

그 큰눈에 숨겨진 슬픈 비밀과 젊은 정열은 이제

혜경은 항상 강의실가운데 줄 맨앞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다. 늘 조용했으며, 무척이나크고, 예쁜 눈을 가졌었다. 그녀는 책에서도, 집에서도, 「Dogguk Post」의기자 또는 편집부장으로 있던 東大新聞社에서도 맡은일에 충실히 노력하며, 그 큰 눈을 뚫망뚫망 굴리던 순수무구한 처녀였다. 우리가 우리의 대학생활을 다른사람에게 이야기 할 때 혜경의 이야기가 꼭 화제에 끼이곤했다.

그러나 그 혜경이 지난4月2日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조용함 속에 감춰진 그많은 비밀들을 비밀로 놔둔 리들 속에서 홀적 떠나갔다. 한번도 「싫다」는 말을 못하던 그 착하디 착한 그녀를 우리는 더이상 사랑할 수가 없다.

그녀가 읽었던 많은 책의 이야기, 가장 인상깊게 읽었던 쉘링거의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큰 눈에 숨기고 있던 은은한 슬픔의 비밀들과 젊은 열정에 대해서 더이상 들을 수가 없다.

그녀의 묘비제막식날. 경기도 광주, 그녀의 묘소로 가는 길은 화사한 봄빛과 함께 한적하게 홀 러갔다. 봄의 따스한 기운은 원망스러움 만치 우리들의 텅 빈 가슴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리들의 슬픔을 실은 차가 묘지에 닿았을때, 그녀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왔다. 동출기를 흉어내리는 설움과 금방 그 큰눈을 글썽이며 조용히 웃는 그녀의 모습이 오우버·랩되며 한줄기 눈물과 우리들의 슬픔을 그녀의 무덤에….

『평소에 늘상 곁에있던 그녀의 수줍음 속에서 읽힌 지난 날을 기억하며 눈물지으셨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일은 그녀를 추모하는 일뿐이다. 그녀의 맑고 큰 눈과 고운마음이나 많은마음 그리고 그리고 혜경이 결국 發揮하지 못한 비밀을 추측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한 혜경의 모습을 만들고, 두고두고 未來로만 기억할 것이다. 맑하자면 잔다이크 같던 그녀를 우리는 미래의 동물보 기억할 것이다.

어서 가거라. 이 世俗의 잡다한, 원망스런온현실을 접어두고, 새로 태어날 그 땅에서나 그아름다운 꿈 가꾸어 꽃밭 같은 영원의 淨土를 가꾸어라.

〈文理大 英文科〉 조 성 원

新刊 안내

「이사도라·이사도라」 母音社 刊

이사도라 던컨의 自叙傳

영혼의 秘密과 신비告白

〈師範大 國敎科〉 李 昌 植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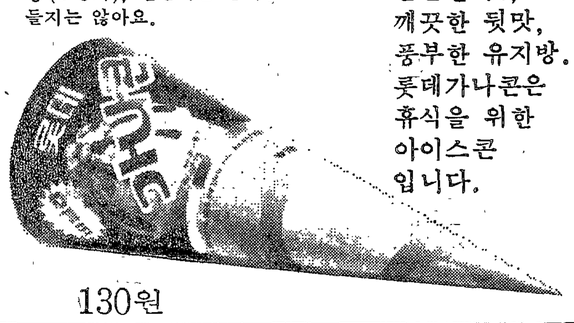
롯데 아이스크림 앵닐의 선물

유채꽃 만발한 바닷가를 거니는 화려한 옷차림의 관광객들.
그들에 아랑곳없이 돌담과 바람속에서 검게 그을린 얼굴, 거칠어진 손으로 남자의 힘든일까지 마다않는 제주의 아낙네들.
어깨에는 항상 바구니를 메고 바쁘게 걷는 분주한 모습들—
손을 흔들며 반기는 그들의 그 웃음속에서 소박하고 티없는 한국여인의 참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읍니다.

"가나콘에 사르르 녹아드는
맛이 참 조습디다게"

부지런한 제주 아낙들은
새벽 파도 소리에 잠이 깬단
허지만에.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새벽이슬 밟으며 밭으로
나감수게.
조랑말과 씨름하면서
검질 (밭갈이)을 매고
때로는 산에강 고사리도 캐고
밀감밭 손질에다가
물질까지 하고보면
하루해가 헌적 (잠간) 가붑니다.
힘들지 않는댄 골았수꽝?
(힘들지 않느냐구요?)
글쎄 말씀.
몇십년 몸에 젖어보면
경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힘들면 유채꽃 핀
들녘에 앉아서
잠간 쉬고
또 쉬면서 좋은 이웃과 농담하며,
감자도 삶아 먹엄수다.
또 요즘은 시절은 좋아서
별난것이 많이 이십디다.
손주녀석 덕분에
어떵하난 (가끔씩) 맛보는
가나콘인가 허는 아이스크림에.
시원도 하고 고소하기도 해서
그 사르르 녹아드는 맛이
참 조습디다게.
초여름의 바다에 들어갔다
나온 맛이랄까예……"



신선한 맛,
깨끗한 뒷맛,
풍부한 유지방.
롯데가나콘은
휴식을 위한
아이스콘
입니다.

130원

慶 (祝) 展
開校72周年 東國祝展